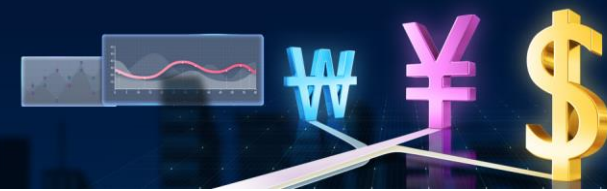


Eugene's FICC Update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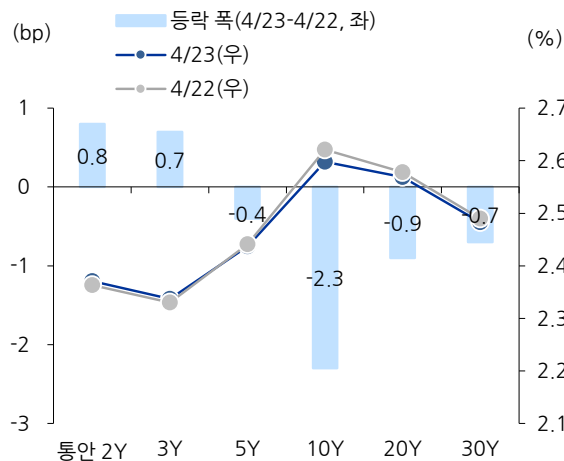
Fixed Income 김지나_02)368-6149_jnkim0526@eugenefn.com Economist 이정훈_02)368-6138_jhoonlee@eugenefn.com RA 유재혁_02)368-6177_dbwogur170@eugenefn.com

Fixed In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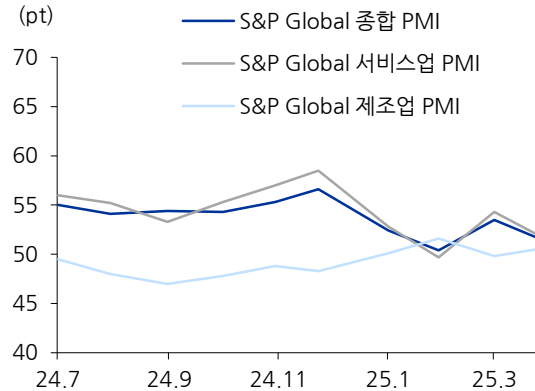
(단위: %,bp, 톱)

	4/23일	1D	1W	YTD
국내 채권	한국 국고채 3년물	2.337%	0.7	-1.4
	한국 국고채 10년물	2.598%	-2.3	-3.1
	장단기금리차(10년-3년,bp)	26.1	29.1	27.8
	3년 국채 선물(KTB)	107.68	-2.0	6.0
	10년 국채선물(LKTB)	121.09	25.0	28.0
해외 채권	미국채 2년물	3.869%	4.5	2.1
	미국채 10년물	4.384%	-2.0	4.9
	장단기금리차(10년-2년,bp)	51.5	58.0	48.8
	독일국채 10년물	2.499%	5.7	-0.7
	호주국채 10년물	4.215%	0.5	-14.1

일간 금리 등락 폭 & 커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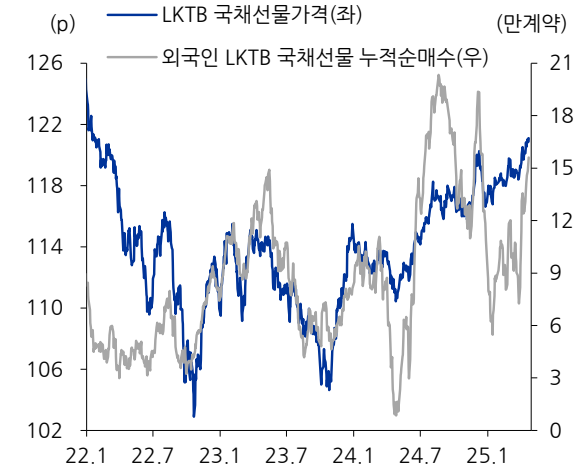
미국 S&P 글로벌 PMI 동향



국내 채권시장 동향

- 국내 채권시장 혼조세 마감.
- 전일 미국채 커브 플래트닝에 연동되며 출발. 미국의 대중 관세가 협상을 통해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 속 그 간 이어져온 미국채 매도세 완화된 점 반영.
- 외국인, 국채선물 10년물은 순매수하고 3년물은 순매도하며 시장 흐름 주도. 장 중 10년 금리는 2.5%까지 낮아졌고, 이후 소폭 되돌리며 마감.
- 이외 특별한 재료 부재. 기재부 1차관, 2차 추경 편성 관련 언급했으나 구체화된 바 없어 시장 영향 미미.

외국인 10년 국채선물(LKTB) 수급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

- 미국 채권시장 혼조세 마감.
- 트럼프, 파월 연준 의장 해임할 생각 없다고 밝힌 영향에 미국채 장기 금리 하락.
- 다만 단기 금리는 인플레이 우려 속 반등. S&P 글로벌 제조업 PMI, 예상 및 이전치 상회했고 특히 하위 지수 중 가격지수는 29개월만에 최고치 경신.
- 한편 미국채 5년물 입찰에서는 양호한 수요가 확인되었으나 시장 영향력은 제한되는 모습.
- 금일 한국 1분기 GDP, 미국 3월 기준주택매매, 일본 3월 수출입 등 발표 예정.

자료 출처: 연한인포맥스, Refinitiv, 유진투자증권

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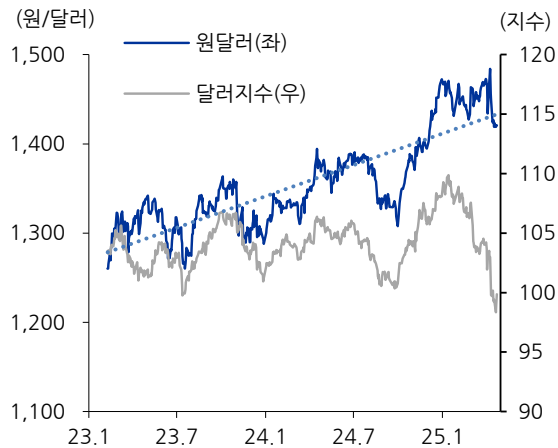


FX & Commod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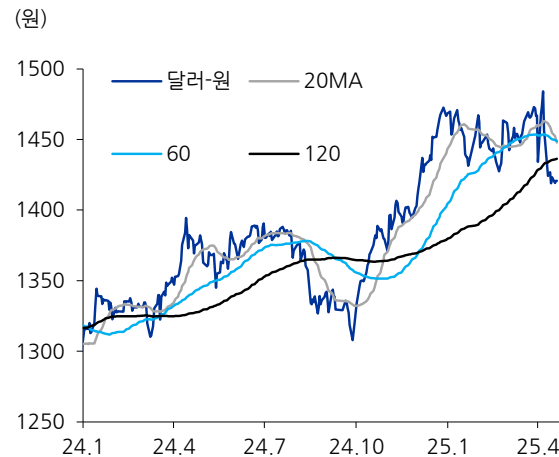
(단위: %, \$)

	4/23일	1D	1W	YTD
원/달러	1,420.60	0.0%	-0.4%	-3.5%
달러지수	99.87	0.9%	0.6%	-7.9%
달러/유로	1.131	-0.9%	-0.7%	9.3%
환율 위안/달러(역외)	7.29	-0.4%	-0.2%	-0.7%
엔/달러	143.43	1.3%	1.1%	-8.7%
달러/파운드	1.326	-0.6%	0.1%	5.9%
헤알/달러	5.71	-0.3%	-2.7%	-7.7%
WTI 근월물(\$)	62.27	-3.2%	1.5%	-13.2%
금 현물(\$)	3,288.76	-2.7%	-1.6%	25.3%
구리 3개월물(\$)	9,369.00	0.0%	2.0%	6.9%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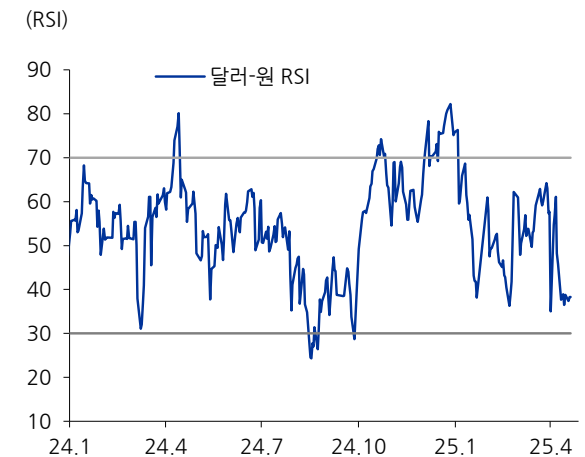
달러-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



원달러 환율 동향

- 달러-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거래일과 같은 1,420.60원에 마감. 야간거래에서는 1,427.20원 마감.
- 간밤 미중 무역갈등 완화 기대감에 달러가 급반등하면서 달러-원은 +8.60원 상승 출발. 달러 강세 압력 속에 오전 중 1,431원 선에 진입. 중국 당국의 위안화 절하 고시도 영향.
- 그러나 오후 들어 달러 강세가 진정되고 네고 물량도 출회되면서 달러-원을 상승폭을 계속해서 반납. 국내증시도 코스피가 +1.5% 상승하는 등 위험 선호 심리 자체는 나쁘지 않았으나,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1,500억원 가량 순매도.

달러-원 환율 상대강도지수



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

- 달러 인덱스는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추가 상승.
- 전일 백악관은 대중 관세율을 50%까지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그러나 이후 베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중 관세를 인하하는 제안은 없었다고 언급. 미국 금융시장 마감 무렵 미국이 중국산 차량 부품에 대한 관세도 면제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들이 등장.
- 한편 베센트 재무장관은 일본과의 무역 협상에서 환율 문제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달러-엔은 급등.
- 미국 4월 S&P 글로벌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는 각각 50.7, 51.4를 기록. 제조업 부문의 투입비용이 29개월만의 최고치로 상승.